

OJT 활동을 끝내면서

영어영문학과

201621585

최연우

아주대학교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일본어 공부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직접 일본을 방문해 본 경험은 어린 시절의 가족여행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평소 나는 일본의 문화 (TV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만화책 등)를 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고, 그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 알아보는 등의 활동을 매우 자주 하였고,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에 여행을 가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취직하고 싶다는 마음 또한 강하게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도 거의 없었고, 학교의 동기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JLPT 라는 시험이 1년에 2번씩 있다는 사실을 듣고, N1 자격증을 따기 위해 1학년 시절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원서도 사서 읽어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이는 단순히 JLPT를 따기 위해 노력했던 기간이 아닌, 일본의 문화나 정치, 경제에 대해 어렵지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시기, 지금 OJT를 다녀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시간이 아닐까 하고 회상해본다.

그러던 중, 내가 일본에서 취직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던 일본인 교수님인 '히타나카 아이' 교수님이 박성빈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강하게 추천해 주셨다. 보다 일본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나는 '일본 입문' 과 '일본 산업과 기업'의 2 가지 수업을 듣게 되었다. 3학년 1학기를 마쳐갈 무렵, 박성빈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일본 다이코 기업에서 단기 OJT(On The Job Training) 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셨다. 마침 지금까지 공부한 일본어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활동하고 싶었던 마음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 두었던 N2 자격증과 성적표, 자기소개서와 처음 써보는 이력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였다. 면접을 볼 때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가족 모두가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OJT 활동은 5박 6일의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혼자 힘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조원과 함께, 회사와 최대한 가깝고 경제적인 호텔도 생전 처음으로 예약해 보았으며, 환전도 직접 해보았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수하물 처리, 입국심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날, 조원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서 수속을 마치고, 직접 호텔까지 도착한 후, 교수님과 잠시 동안 만나서 회사에서의 주의사항,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다. 몰랐던 사실인데, 일본은 사내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 신입 교육을 위해서 투자

하는 비용도 1명 1명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특히 다이코 기업의 경우, IT를 메인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사내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IT에 대한 지식은(전문적인 프로그래밍 활용) 거의 없지만, 오히려 모르는 분야인 만큼 교육 받는 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다음날, 준비한 정장을 입고, 다이코 기업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 편견을 하나 없애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내 이미지 속의 IT 기업의 경우.(예를 들어 GOOGLE)의 경우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편안한 사복차림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을 허락하는 이유는 IT기업과 같이 창의성이 중요한 기업에서 직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도 들은 바가 있었다. 하지만, 다이코 기업에 도착했을 때, 모든 직원분들이 정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출근길의 회사원 분들 역시 모두 정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꽤 놀랐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정장 문화 역시 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를 3박 4일동안 교육시켜 주실 와타나베 씨와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 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노트북과 자리를 지급받은 후, 다이코 기업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먼저 다이코 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설명을 PPT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주식회사 다이코 는 히로시마에서 첫 출발을 하였으며, 그 후 다양한 업종으로 계열을 늘려, 일본 전국에 계열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해외로는 홍콩에 진출해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우리가 3일동안 교육받은 회사는, 도쿄 칸다구의 신오차노미즈 역에 위치한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였다. 또한, 해외로 뻗어나가는 회사인 만큼, 영어의 중요성을 교육 내내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 전공 수업을 복수전공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전공 중인 영어영문학과의 수업 역시 소홀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식사를 끝내고 나서, 언어 표현 수업을 들었다.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림인지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제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의미전달이 잘못되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회사에서 말을 잘못 전달하여 실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보통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 사내교육을 할 때는 신입사원에게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나 역시, 말주변이 좋은 성격은 아닌데,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력이 필수라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단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추리 퀴즈를 보았는데, 45분이라는 제한시간이 걸려있는 활동이었다. 추리에 굉장히 약한 나는 제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으며, 결국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특히 일본에서는 학생 시절과는 다르게, 사회에서는 주어진 일이 아

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어진 일은 제 시간을 맞춰서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사막 게임’을 하였다. 어디에서나 그러겠지만, 일본 다이코 기업에서는 IT가 주된 업무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프로그램을 짜는 일보다 팀으로 함께 행동하는 일이 더 많다고 들었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혼자서 내리는 결정보다, 여러명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서로 몰랐던 사실도 보완해 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작은 규모의 팀이었기에 쉽게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지만, 대규모의 집단에서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거나 주변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느껴본 나는, 어떻게 하면 여러명의 의견을 하나로 갈등없이 모을 수 있을 것일까 하는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특히나,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직접 느껴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인상 속에 깊이 남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날에는 일본의 서비스 정신에 대해 와타나베 씨에게 설명을 받았다. 평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가 당연한 듯이 받고 있는 것이 서비스 이지만, 그 서비스 안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연령, 성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서비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평소 호텔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이었다. 호텔이나 공항에서 어린 손님이 있다면 별도로 그 손님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라 생각하니 와타나베씨의 설명이 더 마음 깊이 와닿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날, 우리는 3박 4일이라는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서 IT 프로그램을 직접 짜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대신, 지금까지 배우고, 동시에 직접 본 것을 PPT를 통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기업에 와서 느낀 점,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계획을 짜고,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처음에는 길게 느꼈던 다이코에서의 OJT 활동도 막을 내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책이나 TV 프로그램 안에서만 배우던 일본의 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가 일본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실력은 당연한 것이고, 영어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평소 일본어 공부를 하느라 비교적 영어공부를 소홀하게 대했던 나 자신을 반성한다. 사내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만, 그 전에 먼저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역시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준 아주대학교와 다이코 그룹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본에 처음 가서 여러 가지로 헤맸던 저의 옆에서 도움을 주었던 김예진 학생과 박성빈 교수님, 일본어가 아직 부족해서 많이 헛갈려하는 나를 끝까지 잘 가르쳐주신 와타나베씨와 다이코 그룹의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일본으로 장기 인턴을 갈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